

졸업 연설

추연웅

나는 미국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인정도 받고 뿌듯하다. 내 라틴어 선생님이 한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한국에서 유학생이 우리 학교로 왔을 때도 선생님들은 다 나를 찾고 나한테 그 학생을 도우라고 부탁했다. 나는 한국학교에서 만이 아니라 미국학교에서도 한국 역사 문제를 풀어왔고, 한국어를 통역했고, 한국어의 문법도 가르쳐 봤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는 한국학교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한때는 한국학교를 다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게 오직 엄마가 시켜서였지만, 이제는 이 지식이 필요하고 내 생활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집적 느껴서 한국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안다.

한국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한국어를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졸업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충분히 한국에 대해서 배웠고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잘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래서 나는 한국학교를 졸업한다는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 물론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숙제를 하고 학교를 하루 더 다니는 것이 싫은 마음도 있지만,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내 한국어 실력을 내가 살아가는데에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졸업을 하면 나는 더 이상 배우지도 않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평생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진짜로 한국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웠나?” 한국학교를 졸업할 생각을 하니 이런 질문도 하게 된다. 지금이 나의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정점일 수 있다.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어를 더 배울 확률은 무척 낮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기도 하다. 한국학교를 다닐 동안은 학교 가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막상 졸업할 시간이 되니 아쉬운 면도 있다. 마치 이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학교를 마칠 때야 생기는 것 같다. 한국학교를 졸업할 시간이 되어서야 한국학교가 왜 중요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졸업을 하게 됐으니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내가 한국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나는 항상 한국어를 쓸 것이다.

그리고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랑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항상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신경을 안 썼던 말을 해주겠다.

“한국학교가 지금은 싫겠지만, 나중에는 큰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집에서 한국말을 쓰게 만드신 엄마, 아빠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도움이 됐던 사랑한국학교에게 행운을 빕니다.

2016 년 6 월 11 일